

# 韓國古書籍 日本刊行攷

—朝鮮朝를 中心으로—

柳 鐸 —\*

## 차 례

- |                  |                       |
|------------------|-----------------------|
| I. 序             | Ⅱ. 通信使 唱酬錄에 대한 새로운 視角 |
| Ⅱ. 朝鮮朝 韓國本 日本刊行本 | Ⅳ. 結                  |

## I. 序

우리는 日本에서 刊行된 韓國本을 調査하기 위하여 1983. 1. 16~2. 15까지 1個月동안 渡日한 바 있다. 이는 이때 조사된 것의 1차 보고서임을 밝혀둔다.

앞에 내세운 主題는 껍이나 의미있고, 해야할 作業으로 생각하였다. 韓國과 日本과의 관계에서 볼 때 日本刊行의 韓國本을 調査整理해 본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文化傳播의 見地에서 書籍刊行이란 傳授의 媒介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日本文化의 源流가 우리 韓國文化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15C 以後, 즉 朝鮮朝에서 日本文化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이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解答에 궁색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朝鮮初期 使臣을 보내어 佛經 및 기타 서적을 많이 보내 줄 것을 要求하여 왔었고, 壬亂 때는 우리의 귀중 서적은 물론 印匠 등 기술자를 데려가서 필요한 책을 刊行도 하고 기술자로 하여금 그 기술전수를 권장하였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日本은 오늘의 文化를 구축했던 것이다. 우리의 文獻이 그들의 必要에 의해 刊行되고 그것을 읽음으로 해서 새로운 文化的 經驗을 했다면 그들의 文化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속에 韓國文化의 因子가 그 속에 潛伏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이에 韓國精神이 그들의 文化 속에 어떻게 普及되고 受容되어 있는가 하는 實證的 研究가 必要한 것이다. 막연하게 우리 民族이 日本民族보다 우수하다, 또는 그 文化源流는 우리의 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같은 刊行文獻의 諸般事實을 구명해 봄으로써 日本의 眞面目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文化傳播의 媒介物의 하나인 書籍을 調査分析함으로써 日本文化 속의 韓國文化 因子를 찾는 것이 時宜에 맞는 作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古典文學을 專攻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핀 것은 文學書籍의 日本刊行이었다. 그러나 宗教·社會·文化 전반에 걸친 日本刊行 韓國本을 짧은 時日이나마 힘닿는 데까지 調査했다. 그리하여 57種의 日本刊行 韓國本을 調査하게 되었다.

調査方法은 日本 各圖書館의 藏書目錄 속에서 日本刊行 韓國本을 찾고 그 所藏處를 記錄해 두고 그에 따라 몇몇 圖書館을 調査했던 것이다. 儒家書 14種, 佛家書 3種, 歷史書 6種, 文學書 7種, 教育用 教科書 6種, 醫學書 19種이니 合計 57種이었다. 이는 한달 동안 筆者 個人에 의해 조사된 것이니 日本刊行 韓國本으로는 冰山一角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것을 核으로 하여 時間을 두고 能力이 닿는 대로 整理하여 보고자 한다.

## Ⅱ. 朝鮮朝 韓國本 日本刊行本

이번 調査된 日本刊行 韓國本은 다음과 같다. 日本刊行 韓國本이란 包括된 立場에서 당는대로 조사한 것이기에 細密히 조사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이제 그들을 내용별 刊行時代別로 나누어 보니 다음 표와 같았다.

이것이 철저한 調査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통계라면 더욱 신빙성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個人의 短時日內的 調査이기 때문에 所期의 것이 못되지만 하나의 探索의 資料는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통계에 의한다면 17세기에 44種 즉 58%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때 日本은 韓國文化를 많이 受容했음

今般調査된 韓國本 日本刊行 內容別 時代別 統計表

種別	種	時代別										計
		15C	16C		17C		18C		19C		未詳	
			前	後	前	後	前	後	前	後		
儒家書	14			7	12	3		2	2	2	28	
佛家書	3			2				1	1		4	
歷史書	6			2	2				2		6	
字類書	2			1						1	2	
文學書	7			2	5		1		1	1	10	
教育用教科書	6			1	5						6	
醫學書	19		3	3	2	2	4	1	2	2	19	
合計	57		3	18	26	5	5	4	8	6	75	

을 알 수 있다. 내용별로 보면 儒家書가 14종으로 24.6%이고 醫學書가 19종으로 33.3%이다. 儒家書가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儒敎文化 受容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개 退溪先生의 論著를 많이 刊行하였고 그 영향으로 明治維新의 精神的 기반이 되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醫書가 19종 33.3%를 보인 것은 日常生活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醫術의 導入은 곧 그 나라 福祉社會를 이룩하는 데 관심이 깊었던 것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 使臣이 渡日할 때는 반드시 醫員이 隨行했기에 그 수행의원에게서 醫術에 대한 새로운 情報와 技術을 배우거나 물었던 것이다. 위의 圖表에 따른 해석은 그 圖表가 갖고 있는 不確實性 때문에 言及을 피하고 조사된 57種의 書名 및 刊行時期, 刊行處 등을 조사된 대로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儒家書〕 14種

1. 朱子書節要 20卷 20册.

- 寬文 11年 辛亥(1671) 春二月良日 黑岩慈庵跋. 二條通 玉尾町上村次郎右衛門 刊行.
- 明曆第貳丙申(1656) 稔仲多日 荒木利兵衛尉刊行 <萬曆 乙亥(1575) 季夏 重刊于 川谷書院 暮年而工畢(韓國本)>
- 寶永 6年(1709) 己丑秋九月良日, (黑岩慈庵跋), 攝津高麗橋一丁目伏見尾藤三

郎(寬文版斗 同版)

- 明治 4辛未年(1871) 再鐫, 龜岡牧命順子正校訂 (이 本에 는 卷末 '退溪先先 答 李仲久書' 가 없음)
- 2. 延平問答 2卷 2册 朱熹編, 明周木補, 李滉附跋
  - 正保 4丁亥年(1647) 仲夏下旬刊, 京都書林 二條通 依棚風月藏左衛門
  - 正保 3丙戌歲(1646) 仲冬吉旦 二條通觀音町 風月宗旨刊行
- 3. 李退溪書抄 10卷 10册. 村土玉水 編
  - 文化 8年(1811) 阪田寒泉 跋, 古賀精里序, 信古堂藏板 伊勢崎藩府印.
- 4. 天命圖說 1卷 1册, 鄭之雲, 李滉 共撰.
  - 慶安 4曆(1651) 孟春 中野小左衛門, 元和辛酉(1621) 林羅山跋.
  - 正保三歲(1646) 仲秋 風月宗旨刊
- 5. 聖學十圖並戊辰封事 1卷 1册
  - 承應 4年(1655) 三月上旬, 二條通 武村勘兵衛
  - 承應 4年(1655) 三月上旬, 西村五郎兵衛開板
- 6. 易學啓蒙圖說 4卷 3册
  - 寬文 9己酉(1669) 孟春吉日 武村三郎兵衛刊行
  - 明曆 3丁酉(1657) 仲冬吉日 五倫書屋 開板
  - 明曆 3丁酉(1657) 仲冬吉日 伊吹權兵衛板(以上 同一 種本임)
- 7. 自省錄 1卷 2册
  - 寬文 5稔乙巳(1665) 三月吉旦, 二條通玉屋町 村上平樂寺開板
  - 萬治 2年己亥(1660) 冬十一月 石齋齋詞信之訓點 (萬曆 13己酉冬 羅州牧 刊本 을 底本으로 한 것)
- 8. 朱子行狀 1卷 1册 (宋)黃幹撰 李滉輯注
  - 寬文乙巳4月梓鏡, 正德三辰(1712) 二月壬點 平安二條街壽文堂藏板
  - 寬文五稔乙巳(1665) 四月吉旦, 二條通玉屋町 村上 平樂寺板
  - 京都三條通堺町 出雲寺松栢堂 刊本
  - 文化元年 甲子(1804) 二月刊本
  - 無刊記 附頭注本 附朱子圖像
- 9. 西銘考證講義 1卷 1册
  - 元祿六年癸酉(1693) 八月之吉日 京東洞院夷川上町 林九兵衛壽梓, 寬文丁未 (1667) 季秋望日一齋謹記(卷末)
  - 寬文八戊申(1668) 仲春吉旦 樞町通角倉町 山森六兵刊行
  - 寺町通 佛光寺 下ル町 齋屋勘兵衛
  - 角倉通 監屋町 小松太郎平開板
  - 明治二年己巳(1869) 補刻 浪華書肆騰孚閣梓
- 10. 心經附註 4卷 4册. (宋)眞德秀撰 (明)程敏政附注 附書李滉心經 後論.

- 慶安二年(1649) 仲春日 村上平樂寺開板
- 正保四丁亥歲(1647) 六月吉日 二條通 澤田庄 左衛門刊
- 11. 入學圖說 2冊 權近 撰
  - 寬永甲戌(1634) 八月 書舍道半新刊
  - 慶安元年(1648) 十月吉日 安田十兵衛開板
- 12. 許魯齋先生心法 1冊 (元)許衡 撰 (明)韓士奇 校
  - 元祿四年辛未(1691) 八月之吉 京東洞院通夷川上町林九兵衛壽梓(韓國本覆刻)
- 13. 易學啓蒙補要解 4卷 4冊 (宋)朱熹 著 世祖要解
  - 日本 江戸時代 刊本임. (成化 二年(1466) 崔恒의 跋文이 있음).
- 14. 夙興夜寐箴注 1冊  
(盧守愼注本)

〔佛家書〕 3種

1. 天台四教儀 1冊 諦觀 錄
    - 寬永三丙寅(1626) 九月吉日於洛陽本國寺之內開板.
  2. 禪家龜鑑 1冊 西山大師 撰
    - 延寶 六歲次戊午(1678) 春王正月穀旦, 二條通玉屋町 村上平樂寺開板
  3. 賢首諸乘法數 11卷 2冊 (明)行深 輯
    - 貞享二年(1685) 刊本の 重刊, 京都三條通 富小路東江八町弘簡堂升屋 勘兵衛板  
(이는 伽倻山 鳳栖寺 刊本の 복자본임)
- ※ 佛教관계 서적은 다른 것보다도 많을 것으로 여겨지나 그 관계에 눈여겨 보지 못했기에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뜻있는 자가 이 方面의 것을 정리해 줄 것을 믿는다.

〔兒童教育用教科書〕 6種

1. 擊蒙要訣 1冊 李珣著
  - 萬治元年(1658) 刊
2. 神國童蒙先習 1冊, 陳復昌著, 松下見林 刪補
  - 元祿癸酉(1693) 橘月壬申 平安 松下見林序, 元祿六年癸酉(1693) 十二月之吉 京東洞院通夷川上町 林九兵衛壽梓
3. 千字文 1冊
  - 延寶 6年(1678) (對馬島를 거쳐 江戸에서 복각)
4. 千字類合 1冊
  - 元祿五年(1692)의 序文本(貝原篤信의 序?)
5. 標題注疏小學集成 10卷 5冊 (宋)朱熹 撰
  - 日本萬治元年(1658) 風月莊左衛門, 據明正統元年(1436) (朝鮮覆刻 宣德四年(1429) 活字本重刊)

6. 三綱行實圖 3卷 1冊. 俛循 奉命撰  
○序文 刊記가 없으나 대개 1641~1651 사이에 刊行된 것으로 보고 있음(國立中央圖書館에도 그 印本이 있음)

〔字類書〕 2種

1. 龍龕手鏡 8卷 7冊 (遼)行均 著  
○1596~1614 사이에 刊行
2. 三韻通攷 作者未詳 1冊 刊年未詳

〔文學書〕

1. 梅月堂金鰲新話 1冊 金時習 著  
○承應二年(1653) 刊本  
○寬文十三年癸丑(1673) 仲春 福森兵左衛門板行  
○明治十七年(1884) 栃木縣土族 大家彦太郎板
2. 剪燈新話句解  
○慶安元年(1648) 十一月吉日 二條晴明町井筒屋六兵衛刊  
○慶長 元和問의 古活字本도 있음
3. 剪燈餘話 7卷 7冊 (明)李楨 著 張光啓 校  
○元祿五年(1692) 壬申十月之吉 京東洞院通夷川上町林九兵衛壽祥
4. 三韓詩龜鑑 3卷 3冊 趙 云乞 編  
○于時元祿十一年戊寅(1698) 仲秋 穀旦 皇城書肆桐華堂中村五兵衛彫刊  
(이 책은 中宗 21년(1566) 順天府開刊本을 覆刻한 것임)
5. 東人詩話 1冊 徐居正 著  
(이 책은 成宗 8年(1477) 密陽에서 刊行한 初刊本을 孝宗 6년 乙未(1655)에 日本通信使隨行員이던 李明彬이 日本人 菊地東勻(1617~1682)에 寄贈한 것인데 이를 東勻의 아들 鵬溟(1658~1720)이 1687年(肅宗 13)에 日本서 刊行한 것임).
6. 唐土行程記 4卷 4冊 崔溥著 清田絢抄譯.  
○明和六己丑(1769) 六月, 皇都書林, 河南四郎 右衛門 林伊兵衛 日野屋瀨七 端六右衛門 合刻. (卷末에 隆慶三年(1569)에 쓴 柳希春의 跋文이 붙어 있음)
7. 老松堂日本行錄, 1冊 宋希環 著 谷村一太郎·小川壽一校訂 續  
○群書類從完成會刊, 昭和 43(1968)

〔歷史書〕

1. 歷代君臣圖像 2冊  
○慶安四年辛卯(1651) 五月 御幸町通 長倉町安井宗左衛門尉開板  
(이는 中宗21年(1526)에 刊行된 韓國本의 覆刻, 嘉靖四年(1525) 議政府左贊成 兼弘文館大提學 李荇(1478~1534)의 序가 붙어 있음)
2. 古今歷代標題注釋十九史略通考 8卷 14冊, (元)曾先之編 (明)余進通攷

(원본은 宣祖十五年(1582) 弘文館校理 金暉(1573~1613) 奉教讐校한 것을 元和二年(1616)에 日本 東福寺의 守藤集雲이 活字로써 印行 末尾跋文은 木板印刷다)

3. 懲愆錄 4卷 4册 柳成龍著
  - 元祿八年乙亥(1695), 貝原益軒序, 京都大和屋伊兵衛刻
4. 東國通鑑 56卷 30册
  - 寬文七年(1667) 京都松栢堂林前和泉椽白水에 의해 刊行(初刊)
  - 明治16年(1883) 京都三條通 高倉東入栢屋町書林出雲寺 文治郎 補刻重刊
5. 隱峯野史別錄 1册 安邦俊著
  - 嘉永己酉(1849) 仲冬 有孚爾齋刊  
(이는 安邦俊의 임난기록인데 顯宗 四年(1663) 興陽에서 刊行된 刊本을 가지고 渡邊崧이 刊行한 것임)
6. 東國史略 6卷 2册 柳希齡 著 刊年未確認  
(이 책은 현재 中國 臺灣 故宮博物館書庫에도 6卷 2册本이 韓國古活字本과 함께 있음)

〔醫 書〕 19種

여기 列學되는 醫書類는 三木榮 著 「朝鮮醫書誌」(學術圖書刊行會 昭和 48)에서 抄出한 것이다. 상세한 書誌는 該書를 參考하기 바란다.

1. 玉機微義	50卷 8册	1605
2. 新增鷹鵬方	1册	1634
3.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	4册	1624~1702
4. 神應經	1册	1645
5. 醫學正傳	8卷 8册	1587
6. 十四經發揮	3卷 1册	1596
7. 東垣十書	3卷 1册	1597
8. 龐僊活人心法	1册	1653
9. 壽養叢書類輯	4卷 4册	1669
10. 馬經大全	1册	1702 以後
11. 無冤錄述	2卷 1册	1768
12. 證類本草	25册	1775
13. 癸巳新刊御藥院方	11卷 5册	1798
14. 醫眼方	1卷 1册	1814
15. 外科精要	3册	1725
16. 鍼灸經驗方	3册	1725
17. 訂正東醫寶鑑	25卷 25册	1724
18. 醫方類聚	266卷 264册	1861

### Ⅲ. 通信使 唱酬錄에 대한 새로운 視覺

이상에서 韓國本이 그대로 日本에서 刊行되었거나 參校 또는 抄錄刊行한 것 등을 조사한 目錄을 위에서 제시했다.

各 分野의 専門적 검토는 그 該方面의 關心者에 맡길 일이고 여기서는 文學書籍에 대한 몇가지 眞 眞을 眞 眞하고자 한다.

文化란 上層에서 下層으로 내려만 갈 수 있는 물의 속성과 같아서 上級文化地域에서 下級文化地域으로 順流한다. 國家와 民族間의 文化交流도 역시 이 原理를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他國 또는 他民族의 著述을 自國에서 刊行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나라 또는 그 民族의 必要에 의해 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같은 作業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比較文學의 側面에서는 眞 眞이 있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면 金時習의 金鰲新話가 日本에서 3번이나 刊行되었던 사실을 두고 볼 때, 왜 日本에서는 金鰲新話가 3번이나 刊行되었을까. 그 어떤 階層의 要求에 의해 누구가 어떻게 刊行하고 販賣되었는가의 發信者 媒介者 受容者의 단계를 眞 眞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學界에 소개되고 어느 정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같은 사실을 보다 眞 眞하게 眞 眞할 眞 眞이 마련된 것으로 眞 眞된다. 그런데 여기 韓國과 日本의 文化交流란 立場에서 또는 日本文化 속의 韓國魂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眞 眞하여야 할 眞 眞한 資料가 있다. 그것은 通信使들과 주고 받는 唱酬錄인 것이다. 善隣外交의 基本精神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는 通信使의 수행원이 200~300명이 되었다고 하니, 그 속에는 眞 眞 잘 하는 선비 및 眞 眞들이 있어서 日本은 이 通信使 隨行員과 接觸함으로써 새로운 文化를 眞 眞할 수 있는 眞 眞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唱酬錄이 우리의 손으로 整理分析되어 眞 眞 때 韓國魂의 日本所在를 眞 眞이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손쉬운 대로 조사된 唱酬錄은 時代別로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1. 兩關唱和錄	2卷	1719
2. 藍島鼓吹	1卷	1716~1735경
3. 柔韓埴篋集	11卷 11册	1720
4. 班荊問譯(韓人唱和產物筆語)	2卷 2册	1748
5. 善隣風雅(洪啓禧一行)	1册	1748
6. 韓槎埴篋	2卷 2册	1748
7. 和韓唱和錄	1册	1748
8. 柔韓筆語	1册	1764
9. 兩東關語	2册	1764
10. 雞壇嬰鳴	1册	1764
11. 雞林唱和集	15卷 15册	1772
12. 兩東唱和後錄	1册	1772
13. 長門癸甲問槎	2卷	1763

위의 같은 唱和錄을 分析해 봄으로써 文學的 側面은 물론 文化移讓의 事實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된다. 우선 우리 通信使들과 筆談 唱和한 文獻의 目錄부터 作成해야 될 것이다.

#### IV. 結

짧은 기간 동안이나 눈여겨 살펴본 결과를 위해서 提示했다.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뜻인데 이는 어느 個人的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國家的 사업으로 장기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현재 克日의 길은 바로 이와 같은 文化的 기초사업을 벌이고 그것을 하나 하나 깊이 있게 천착해서 日本 속의 韓國文化 因子를 발견한 뒤라야 그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